

제422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3일(목)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4)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9)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27)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4)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6)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8)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6)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8)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3)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0)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7)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23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1)
-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21. 업무보고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 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관
-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4
2. 소위원회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o 간사(서범수) 인사	4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4)	5
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9)	5
5.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27)	5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1)	5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4)	5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6)	5
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5
1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5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8)	5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6)	5
13.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8)	5
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3)	5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0)	5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7)	5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238)	5
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1)	5
19.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6
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6

-
21. 업무보고 7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관
-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안건 논의에 앞서 여성과 아동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잔혹하게 희생을 당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가족위원회가 앞장서서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정부와 국회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 미흡함이 없는지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여가위 회의입니다. 올해도 여성가족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여성·가족 정책이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법안 회부 및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김선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정춘생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새로 보임된 정춘생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 후에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규 입법심의관입니다.

이보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임금 입법조사관입니다.

지수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다들 각자 인사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새로 보임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은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16건, 청원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8분)

○위원장 이인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당직 업무 변경에 따라 최초 간사셨던 서범수 위원님을 다시 간사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서범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39분)

○위원장 이인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간사가 서범수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범수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3개 소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간사(서범수) 인사

(10시40분)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서범수 간사님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정춘생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범수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헛갈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숙 위원님이 위낙 바쁘셔 가지고 별일 할 일 없는 제가 다시 간사로 왔습니다. 그동안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리고 김한규 간사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등 없는 등 하면서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를 부탁합니다.

다음 정춘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가족 정책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4)
 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9)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27)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1)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4)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6)
 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1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08)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6)
 13.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8)
 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73)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0)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7)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238)
 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1)

19.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10시41분)

○**위원장 이인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이연희 의원님께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접 하시겠다고 요청해 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서면으로 하는 건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순서가 됐으니까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홍덕구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9일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것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 수행된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경력단절여성 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변경하여 긍정적인 사회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제 지원과 포상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법률개정안은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존중을 높이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섬세한 부분까지 다뤄 주신 좋은 법안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에는 질의 및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이 끝나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 관계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관

(10시47분)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5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온둔 청소년 지원기반 구축,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등 약자 보호와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 올 한 해에도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저출생 극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여성, 가족, 청소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정과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 신설 등 돌보미 쳐우를 개선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틈새를 메꾸어 나가는 한편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의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전국 159개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지원으로 개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성별균형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정책 전반의 양성평등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8월에 개최되는 APEC 장관급 여성경제회의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가족과 청소년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올 7월에 본격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기능이 약화된 조손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안정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취업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온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피해 신고창구 일원화, AI 기반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제폭력 등 관계기관 폭력피해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신종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폭력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온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덟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도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올 한 해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소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필요한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귀 기울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조민경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입니다.

최문선 대변인입니다.

김권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은주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입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일터를 확산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위소득 200%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 추가 지급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도입 등 서비스의 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보다 쉽게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여 가족친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월 10만 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하는 참여수당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의 장기 고용을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며 찾아가는 창업컨설팅 등 창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을 담은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성 교육도 확대합니다.

8개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금년 8월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하는 APEC 장관급 여성경제회의도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등 주거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족을 적극 발굴하여 무료 법률 지원, 시설 입소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44개소의 가족센터를 통해 긴급위기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도 내실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퇴소 후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며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비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고립·온둔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협업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방과후활동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도박·마약류 불법 광고나 유해정보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로 체계화하고 피해 삭제 지원의 범위를 불법촬영물 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하며 지역단위센터를 통해서 상담, 수사기관 동행 등 밀착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신속한 지원 통로도 구축하겠습니다.

교체폭력 피해자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진단도구 보급, 찾아가는 법률상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적인 폭력피해를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광역 단위의 1366 통합지원단도 현재 5개소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도 신규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해바라기센터 확충 등 지원 인프라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확대하고 올해 광복 80주년과 연계한 기념사업 등 명예회복과 역사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신종 폭력 내용을 담아서 교육콘텐츠 개발, 통합 가이드북 제공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대학생에 대한 대상별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폭력 증가와 폭력 유형 다변화 등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조실장께서 한 전체 업무보고에 총괄적으로 보고가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장들 다시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혹시나 발언하시는 동안에 질의가 있으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다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김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인사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김은희 양평원은 양성평등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평원이 양성평등 교육 및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 직무대행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 인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 상 짧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0년 설립 이후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도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은 조언과 또 좋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흥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손연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입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올해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또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 강화 등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짧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금년도에 아이돌봄이 최대한 확충되고 원하는 가정들이 모두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대책으로 나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중앙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주원 안녕하십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주원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양육비 이행금액 428억 원을 달성해서 단년도 최고치를 갱신했고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2230억 원을 달성하고 양육비 이행률 45.3%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고견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님들과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달희……

○이달희 위원 잠시만요.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이인선 예, 자료 요청 말씀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직무대행님, 문형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형배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가십거리로 여기저기 정말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님,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이 구속 기소된 사실을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달희 위원 목사, 집사 이런 별칭으로 텔레그램에서 성착취한 일당이 구속되고 신상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우리 사회에 지난 8월에 이어서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나라의 큰 이슈일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가위원님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빨빠르게 법안을 마련하고 9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또한 국정감사 시에도 여야가릴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달희 위원 이슈가 될 당시에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관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4월에 시행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달희 위원 다 마련했나요, 시행령하고?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이달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개정안의 내용에는 중앙 디성센터,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긴급 상담 및 삭제지원,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디성센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야가 증액키로 한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때 논의 과정에서 82억 원 증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확보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렇듯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우리 여야가 그동안 노력한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50명의 예결위원들이 늦은 밤까지 심지어 새벽까지 국무위원들과 질의·토론하고 2025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상대 민주당 동료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정확하게 짚을 때 존경심마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안이 단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의 단독 예산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만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에 수반되는 예산마저 묵살한 민주당이 통과시키자마자 돌아서서 12월에 추경을 얘기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삭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추경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이 부분만 해도 추경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사과를 해야겠지요. 이유를 말씀해야겠지요.

추후 추경 편성이 진행되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디스센터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여야 간사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가위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그리고 대처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하고 정말 같이 논의했던 것이 추경예산에서 확보되어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정책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도록 두 분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 최근 대전에서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하는 돌봄 분야에서도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차관님, 지난 1월에 인천 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자신이 돌보던 두 살 쌍둥이를 폭행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영상자료에서는 저항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두 살 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었는데요. 해당 사건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백승아 위원 이 피해 아이와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 관련 모니터링했고 그다음에 현장도 저희가 가지고, 저희 담당 국장님 가서 현장 파악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 상황도 좀 살폈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해당 돌보미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도 진행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께 이 사건으로 큰 상처 받았을 아이와 부모님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일 30~40명씩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아이돌보미로 채용되고 현장에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채용 절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적성 검사

라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 단계별 관리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 현장에서 이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지원·조사·관리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훌륭한 돌봄사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건강하게 돌봄 업무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돌보미들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아이돌보미 3453명 신규 확보했지만 2433명이 그만두면서 신규 인원의 70%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런 아이돌보미, 기관 종사자 정신건강 등 치유 지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원사업 예산 같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산 확보는 조금 돼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게 지원해 드리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백승아 위원** 여가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치유 지원 프로그램이 아이돌보미 정서치유 집담회 이 하나 운영 중인데 예산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돌보미분들이 2만 9000명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69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소한 지원으로 아이돌보미분들이 제대로 된 치유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아이돌보미들이 건강해야 아이들의 돌봄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분들 처우 개선 또 신체·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 더 충실히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돌봄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24년의 초록우산 아동행복지수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진 아이 둘 중의 한 명이 자신이 과의존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요. 23년도 과기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한 결과도 보면 40.1%가 과의존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아이들의 신체·정신 또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가부가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조사, 상담 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대비 24년 상담 현황이 7000건이 늘었는데 치료나 치유 캠프 입소 인원은 되레 줄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단조사를 해서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같은 경우 상담 연계나 관련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한테 안내문자나 이런 것들을 발송하는데 위원님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인식해서 이걸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셔서 저희가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제가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학생들이 응답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은 부모동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마련한 방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선**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아이돌보미 문제가 많은데 채용할 때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차관님 좀 잘 보면서 전문 영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그것을 협의해 주면서 수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신영숙 직무대행님과 여성가족부 공직자 여러분께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신 대행님, 온라인상 성범죄 유포행위가 여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일명 목사방이란 다단계 조직 성범죄로 23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성착취는 물론이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만 96명에 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대부분이 10대, 20대로 구성되어 사회적 경각심이 참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근절되지가 않고 유포행위가 계속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무래도 이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범죄라는 인식 같은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다음에 해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단속이나 수사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다음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따끔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법재판관이라는 분이 미성년자 음란물이 벼젓이 공유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치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행번방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는 2000여 건의 불법음란물이 게시 및 유통됐고 문재판관께서도 당시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대행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지금 그 보도를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온라인 카페에서 불법음란물, 심지어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첨법 위반, 불법음란물 유포 범죄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관련 사항은 제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은희 위원** 대행님께서는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계셔서 n번방 이후 목사방까지 나온 이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카페에서 수년간 음란물이 소비되는 동안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조은희 위원** 만약 대행님이 졸업하신 카페에서 대행님이 거기 회원인데 이 같은 글이 유포됐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그 피해사실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지원이라든가 그 삭제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 유포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고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셨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게……

○**조은희 위원** 문재판관께서 급히 자신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했지만 그 증거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 문제에 주력하는 사이 국내 온라인 카페는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해외 플랫폼 탓만 하지 말고 온라인 카페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지금 현재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AI 기반해 가지고 탐지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스템을 도입하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해외 플랫폼 탓만 하지 마시고 국내 온라인 카페에서 이런 일이 벌것이, 고위 재판관께서 이렇게 공유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지요. 참 대한민국 그래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여가부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가부차관 그날 갔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다행이에요.

거기 참석해서 대통령을 호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늘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사건 관련해서 교육공무원법으로 질환 교원 관련한 심의를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교에 있는 아이들 돌봄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사 그리고 또 아이들을 방과후에도 돌봐 줄 SPO 등등 관련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거지요. 거기서 험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일정 시간 전에는 오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를 돌보게 한다든지…… 지금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여가부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는 어떡하고 하늘이 가족은 어떡합니까. 또 겪는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어떡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가부에서 세워 봅시다. 저희들도 좋은 안을 내 볼 테니까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와 수요집회에 북한을 향한 기쁨조라고 이야기했던 윤영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예요. 이 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줬는데 벌금 단 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풀려났더니 이 자가 한 짓이 뭐냐 하면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운 거예요.

저 내용 보겠습니다. 정말로 두드려 깨고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 한 명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영웅 돼서 감방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곧바로 죽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인 모양이에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런 인간들이 위안부 조롱하고 약한 벌금 받으니까 또 저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 난동한 자들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여야 위원님들께 요구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고 역사를 저항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쟁 법안이라고 우리가 법안소위를 하지 않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여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안소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음 장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가 16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면서……

목사방 관련한 내용 올려 주세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음해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건들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헌법재판관 흔들어 대면 그거 역사의 범죄입니다. 내란을 선전·선동하더니 이제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맙니까? 그것은 역사의 범죄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이야기했어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수사는……

○서범수 위원 그걸 왜 여가부차관한테 그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 상황을……

○서영교 위원 여가부차관이 그 제안을 하는 거지요. 여태껏 나왔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당의 위원이 디지털센터 인원 관련해서 야당이 삽감했다는데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올렸고 여당이 정부가 예산안 통과할 때 합의하러 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하고 이거 합의할 때 하러 오지 않아서 감액안만 통과된 것 아닙니까?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해야 증액안이 나갈 수 있어요. 감액안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과시키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야당 탓을 합니까? 2명 안은 누가 갖고 온 겁니까? 이 디지털성센터, 디지털 삭제하는 거에 2명을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디에 나온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원래 정부안입니다.

○서영교 위원 원래 누구 안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 여가부에서, 여가부안입니다.

○서영교 위원 원래 정부안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서범수 위원 시간 좀 지킵시다. 마이크 꺼도 이러네.

○서영교 위원 원래 정부안이에요. 원래 기재부가 갖고 온 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기재부가 갖고 온 안이 2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합의해서 올렸는데 여당과 정부가 합의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리니까요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인원 확보하고 더 들려 나갑시다. 그러면 이것의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앞으로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꺼 놓고 하세요. 마이크 끄나 켜나 비슷하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인선 그러네요, 목소리가 엄청 크셔 가지고.

○서영교 위원 간사님, 시간을 더 주자고 하셔야지요.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시홍덕구 이연희 위원입니다.

최근 목사방 사건에 이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성범죄 가해자의 81.2%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디지털·레이브 세대의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인식에서 기인한 문제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성혐오적 표현과 성범죄를 놀이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옥스포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 로트(Brain Rot)’를 선정했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뇌 썩음’입니다, 그게 수준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해서 정신적·지적 상태가 악화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화면을 좀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저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저게 SNS에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10대들이 주로 본다는 겁니다. 차관님,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SNS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연희 위원 SNS를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제가 업무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세대 격차가 나니까, 지금 딥페이크나 디지털성범죄가 주로 10대 청소년들에서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성인식을 통한 n번방 방지법 이외에도 디지털성범죄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처벌도 대책이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에 관한 인권 교육이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 있는 성인권 교육 예산이 23년도에 마감이 되면서 24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서는 성인권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그런 사항들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인권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성인권 교육 예산이 다시 복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폐지될 당시 중복 예산이라는 그런 검토에서 그렇게 됐는데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 이 예산도 저번에 예산심사할 때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복원하자고. 그런데 그것을 여가부에서 반대해서 반영이 안 됐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게 반대를 했다라기보다도 중복에 대한 그런, 처음에 했던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그랬는데 그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내용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가부가, 물론 차관님은 다른 부서에서 오셨지만 여성 인권, 여성 평등에 대한 것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것들은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예산이 일관되게 투여돼서 축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성인권 교육 사업에 대해서 사전·사후 의식변화 및 만족도 조사 2023년도에 발간하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사전·사후 의식변화가 꽤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성인권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김은희** 예,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학교 현장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가부에서 성인권 교육 예산이 종료되고 폐지되면서 경기도나 충남 이런 데서, 각각의 지자체나 교육청·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n번방이나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지 않으면 대책이 그렇게 효과가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권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여가부가 주도를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민주당에서 이 예산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여가부에도 이런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여성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 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저연령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인지 예방교육, 인식개선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이연희 위원님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에 관한 인권 교육은 필요한데 지금 예산 배정이, 다음에 잘 검토하여 가지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차관님, 작년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 합동 대책으로 24시간 상담창구 운영과 삭제지원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81억 원 증액 추진됐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논의 그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증액이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위원님들 공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셔 가지고 다 그 안으로 담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프로세스 중에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저희 여당이 다 참석해서 반대했으면 처리가 안 됩니까? 예산 처리가 그때 당시에 정부와 우리 여당이 참석 안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단 여가위에서는 다 그런 부분들이 증액하는 안으로 저희가 소위에서 이렇게 해서 뒀던 걸로 알고요.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참석을 안 해서 지금 예산이 단독 처리된 게 아니라 야당이 모두 다 참석해서 이걸 강행 처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방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아마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용자 중에 연평균 5.6%의 남성 피해자가 이용 중인데 1366은 여전히 여성긴급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방 사건을 보면 성착취 피해자 138명 중 몇 퍼센트가 남성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60%라고 보고받았습니다.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138명 중 84명, 60%가 남성 피해자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인터넷 포털에 ‘성폭력’을 검색하면 사이버경찰청, 방심위, 여성긴급전화 이렇게 뜹니다. 거기에 신고하라는 거거든요. 가해자들에게 협박당하는 상태에서 바로 112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까? 주저가 되겠지요. 그러면 어디에 신고합니까? 어디에 상담을 합니까? 방심위에 전화합니까, 아니면 남성들이 여성긴급전화에 선뜻 전화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취지가 여성이라는 그러한 특수번호 명칭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들한테는 좀 이용하기 꺼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합니다.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목사방 60%가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엄연히 법률상 용어도 ‘긴급전화센터’고 성별에 따른 구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1366은 5대 폭력, 스토킹·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 폭력·권력형성범죄를 당하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고만 부처에서 답을 줍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이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시고 저희도 취지의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98년부터 이 특수번호가 개설이 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조회도 해 봤습니다.

○한지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명칭이 변경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래서 부처에서 잘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갑니다.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고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하늘 양 그런 사건 때문에, 이건 비록 학교에서 벌어졌지만 아이들이 머무는 어느 곳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들 인·적성 검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다시 고도화를 시도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현재는 채용 단계에서만 이 부분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지아 위원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표준화가 돼야 되고 인증이 돼야 되고 이게 도입됐을 때 재검 주기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이 지난 5년 동안 총 80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24건은 아예 자격정지입니다. 그만큼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세심한 그리고 정밀한, 정교한 그런 정책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 보완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입니다. 정신건강은 질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질환이 절대 범죄로 인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그걸 편하게 치료하기 시작하고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아이돌봄이나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보지만 절대로 질병이 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보니까 정신과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자칫 범죄로 가면 더 숨게 되니까 이렇게 오픈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사설이 있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 중에 SNS 하시냐 그랬더니

안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예.

○임미애 위원 혹시 친구들이, 동창들이 반갑다고 카톡방에 초대를 하면 ‘아이고, 여기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하면서 얼른 나오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안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주기적으로 어떤 소통을 위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르면 그냥 들어가 있지요, 특별한 게 아니면.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제가 주기·적극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불필요한 일이 그 내부에서 벌어지면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양해를 구하고 나오거나.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카톡 경우에는 그렇고 저는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제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강제로 부릅니다, 단체카톡방도 부르고 텔레그램 방도 부르고. 불러서 동창이라고 반갑게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안에 어떤 게시물들이 올라오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일종의 저 역시 불필요하고 올라와서는 안 되는 불법게시물들이 올라왔을 때 제가 미처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를 가해자로 몯다면 만약에 차관님의 경우는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혹은 텔레그램 방에 불법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관님을 범죄자로 몯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것을 그렇게 예시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경찰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방관하셨다라는 의혹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방관했다는 의혹인데 그것을 뚁뚱그려서, 제가 만약에 방관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저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소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당사자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거고요. 저는 이 문제를, 여당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마구 훼둘다가 그것이 반헌법적이다라는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매우 심하게 받으니까, 그 비난에 시달리니까 이제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인 듯 몰아가는 행태는, 저는 이 신성한 국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런 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동료 위원들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요 올 3월 31일이면 미등록 이주아동에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부 구제책이 종료되는 시점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 미등록 이주아동을 다루고 있는 중앙정부 부처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가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셨나요? 국내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 2만여 명이고 이 구제책으로 인해서 구제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는 한 1000여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한 3000여 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정부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이 구제책의 한시적인 기간을 좀 늘려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여가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나 문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법무부에서 3월 말에 체류자격 한시 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협의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여가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여가부가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들의 인권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지방공무원들의 인권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여가부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겸직 위원회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오늘 문형배 재판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사실 디지털 성폭력이 됐든 다른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폭력이 됐든 그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아주 선정적인 방식으로,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 됐든 금전적인 목적이 됐든 아니면 자기의 잘못된 욕구를 채우는 목적이 됐든 그런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형배 재판관이 동문 카페, 대아고 15기 카페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인격을, 명예를,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폭력을 행사해도 됩니까?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폭력과 다릅니까? 정치적인 문제니까 여가부는 그냥 회피하시는 태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한 명의 인격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정적인 방식으로 묵사발을 내는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그런 폭력적인 방식의 일들을 하면 안 되지요. 디지털 성폭력이든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호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여가부든 아니면 우리 모두든 사실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그게 누가 됐든, 그게 현재재판관이든 일반 시민이든 힘없는 누군가든 간에 그 인격이, 그 명예가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음란물이 아니라고 폭력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 명예를 묵사발내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박사방이 됐든 무슨 n번방이 됐든 지금 자경단이 됐든 그게 욕구든 금전적인 이해든 정치적인 목적이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얘기도 조금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돌봄 사업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여가부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예산 삭감 잘못됐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분노할 대상이 되는 예산 삭감이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삭감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예산 조정 자체는 합리적인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했다면 둘 중의 하나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생각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분노를 했거나 아니면 여가부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동의를 했든가.

저는 사실 여가부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예산 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아주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오해에 기반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분노를 한 겁니까, 여가부가 잘못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소위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하신 부분이고요. 정부안이 잘 관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철민 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망상과 오해에 기반해서 계엄과 탄핵과 온갖 국정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 예산 과정이 됐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공적인, 정치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일들이 됐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지금의 혼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여가부가 예산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에 동의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도 아닌 방식으로 가면 도대체 정부 부처가 왜 있는지, 도대체 이런 정치적인 행정적인 결과물들의 그 합리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

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동의하고 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와 명확한 메시지를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차관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날에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제가 정당에 있을 때 여성가족전문위원만 7년 넘게 했습니다. 8년 가까이 했었는데 여가위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증액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최종 본회의로 통과할 때 보면 거의 반영이 안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정부 예산안 몇백조에서 한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보면 몇천조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부에서 편성해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아니면 야당이 삭감해서 안 됐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 딥페이크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 압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 여야 할 것 없이 도움을 구하십시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다 노력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유엔여성 성평등센터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구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여성평등, 여성 정책 관련된 기구가 세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저희가 그 센터에 기금을 출연해서 기본적으로 성평등센터 관련한 일을 저희 여가부하고 잘 협조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굉장히 남의 일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출범하기까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거든요. 제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을 때 굉장히 젠더 이슈도 많고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기구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기재부와 엄청난 싸움 끝에 유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 때 설치가 됐는데 이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언론의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주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여가부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잘 안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춘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이고, 여가부 차원에서도 3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운영위원회에 저희 쪽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지난해 정부에서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정춘생 위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입니다, X 그리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읽어 보십시오, 졸업앨범 구해요 그리고 여자중학교 졸업앨범 삽니다. 이것 왜 살까요?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악용하려는 의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예, 딥페이크에 활용이 됩니다.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교사들도 요즘 졸업앨범을 안 찍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요즘 디지털 앨범을 만들어요. 너무 쉽게 딥페이크 성착취물, 딥페이크 영상물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상황 알고 계세요? 상황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난 8월 이후에 이런 성범죄 확산될 시에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알았으면 이것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정춘생 위원 학교를 추억하고 친구들을 추억하고 그런 앨범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어서 사진을 안 찍어요. 이런 상황을 방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그 당시에 일단 학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대응 안내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서로 공조를 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 인식 개선에 주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정춘생 위원 오늘 아셨으니까 법무부하고 교육부, 경찰청 등하고 협의해서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 의원실에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차관님, 대한민국에 젠더 이슈는 없습니까? 여전히 존재하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예측 가능한 젠더 이슈를 찾아내고 그것을 정책적

과제로서 젠더 이슈로 만들어 가면서 어떤 공론화를 시키고 그걸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앉히는 역할을 하는 게 여성가족부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양성……

○전진숙 위원 그러면 그걸 잘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2기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치뤄진 미국 대선은 젠더 대결이라고 일컬어진 만큼 젠더 관련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전진숙 위원 혹시 그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것들이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성전환 스포츠 선수 관련해 가지고 행정명령 발의하고 그런 부분……

○전진숙 위원 그건 하나의 사례를 말하는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사례……

○전진숙 위원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보도……

○전진숙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글로벌화된 현대사회에서 어느 나라에서,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미국에서 젠더 이슈가 어쨌든 핫이슈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슈는 대한민국의 핫이슈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핫이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어떤 대비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다가갈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쾌하게 답을 못하시네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광장에 2030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여론에서 알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공무원이니까 그 집회 장소에 어디든지 나가지 않으셔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회 현장을 가게 되면 2030 여성들이 정말 다양한 요구들을 가지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정치적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2030 여성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정치권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 왜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전진숙 위원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 2030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회 현장에 나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다면 2030 여성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담겨져 있는 정책적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단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부분의 이면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부……

○**전진숙 위원** 짧게 말씀 주시고요.

혹시 파악하려고 하고 계시는 건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은 하신 적이 있는지 그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20대 여성들이 집회에……

○**전진숙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런 부분도 저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슈가 명확하게 뭐인지를 정리하는 문제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 답변을 못 하고 계셔서 제가……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광장의 민주주의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부처는 이러한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이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 없다 하면 이런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해 보시고 정책적 대안은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은둔형 외톨이 관련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혹시 고립·은둔된 청소년들이 생애주기로 보면 어디까지 간 걸로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때 시작됐던 고립·은둔의 모습은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까지, 청년에서 중장년까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주광역시……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립·은둔의 경우에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2024년 3월에 광역을 포함해서 12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진행을 하고 있고 복지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년 8월부터 지금 4개 기관이 진행을 하고 있지요. 혹시 이 부분을 하면서 같이 협의하거나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이것 사업 처음 할 때부터 기본적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체계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

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전진숙 위원 어떤 체계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러니까 저희 전달체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진숙 위원 차관님, 제가 어떤 체계로 사전에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진행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여가부는 12개를 하는 곳과 복지부에서 4곳 하는 데 중복된, 겹치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없습니다, 현재는.

○전진숙 위원 그 말은 청소년 시절에 이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았던 청소년들이 이후에 청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중장년으로 가면 중장년 그다음에 노년 가면 고독사 관련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 복지부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관련된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건가, 그 대안과 정책적 비전을 누가 만들 건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저는 시작 단계에 있는 여가부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올해는 시범사업이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본격적인 사업을 할 때 주신 말씀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래서 그냥 연계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잘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최근에 법원의 판사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런 분들을, 재판에 어떤 불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인을 좌표로 찍고 공격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헌법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이나 거기 구성원을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소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고 그래 가지고 혐오 선동, 혐오 표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헌법 수호 의무 이런 내용 중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헌법기관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유럽의 방어 민주주의 원리,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헤이트 스피치에 같이 가담을 하거나 그런 것에 연대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상당히 민주주의 위기들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헤이트 스피치 문제, 헌법기관의 판사나 이런 분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고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공무원들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차관님은 헤이트 스피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헌법 수호 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근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럽처럼 극우 정치세력들이 성장하는 데 토대가 되는 혐오표현, 혐오 선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익숙해진 상태 속에서 20대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헌법기관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어떤 극우 정치세력으로 발전하는데 토양이 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도 청소년들 특히 여성, 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이런 소수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런 혐오표현들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학교에서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뒤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문제, 청소년들의 혐오표현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학교 교육에 참조하도록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20년에 그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했던 대책들이나 방안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김남근 위원 예, 따로 보고를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화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텔레그램에 있어서의 성착취물, 딥페이크를 이용한 그게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으로 하여금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정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해서 드디어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가부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 여가부는 범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실무 협의회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부처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범부처 협의……

○김남근 위원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청소년정책관실에 물어보니까 특별히 여가부는 여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닙니다. 그 대책……

현재까지……

○김남근 위원 청소년 보호 업무 이런 것을 하는 데 여가부가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런 인식이 들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김남근 위원** 그러면 텔레그램에 있는 청소년 그 책임을 담당하기로 한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해 보셨어요? 거기에도 청소년 보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이 이러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여가부의 입장 같은 걸 전달하거나 그런 걸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 전체 범정부 대책에서 방통위에서 이런 책임자는 정해져 있고요. 현재 저희 여가부에서는 디성센터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삭제 지원한 건수가 102건입니다. 그 대책이……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런 사후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텔레그램이나 우리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두는 얘기는 예방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청소년 유해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제를 하거나 이런 걸 하라는 건데.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게 되면 이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도 여가부의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하고도 그런 협의를 하거나 또 국내에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청소년 유해물 같은 것들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행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유해매체점검단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여가부 자체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정부적으로는 채널을……

○**김남근 위원**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유튜브나 이런 청소년……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방통위를 통해서 정부 부처에서 협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근 위원** 방통위만 할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여가부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통위가 청소년 보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기를 정부 타 부처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방통위가 카카오나 네이버나 유튜브나 텔레그램에다가 여가부가 정한 이런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걸 하도록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걸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전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방통위에다가 여가부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각 플랫폼에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 줄 것들을 요청하는 무슨 공문을 보내거나 자료를 보낸 거 있으면 좀……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규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대행님,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체계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먼저 오늘 여가위에서 헌법재판관 관련된 논의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본질의하기 전에 그 부분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 주신 장철민 위원님, 김남근 위원님, 소속 당은 다르지만 주신 말씀 취지에 저는 공감하고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또 헌정질서 지키는 것 또 사회 안정 이런 부분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관련된 심판들은 법치와 헌정질서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헌법재판관들을 혼들기해서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이런 헌정질서 또 법치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고 민주주의 회복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여가위에서도 의식을 한 번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폭력도 폭력이지만 언어적 폭력, 사회적 폭력도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비위 또는 성추문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확대 재생산해서 해당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라면 지극히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가위는 성폭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다른 목적의,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가위도 예민하게…… 소속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폭력을 막아 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예민한 민감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 또 아버지·어머니들께서 힘드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우리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아이돌봄사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힘이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을 맡기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정신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돌봄사 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또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부분을 과연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공식적인 인·적성 검사를 통한 그런 부분들은 채용 단계에서만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들을 더 개선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채용 단계뿐만 아니라 관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당장 괜찮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정신 상태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걸러 내지 못한다면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30대 후반에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일에 질리고 너무나 우울증이 심해져서 아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걸러 낸다면 어떻게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이들보미나 아니면 기타 이런 양육 과정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은 다 그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믿고 맡겨도 되나, 우리 아이들 안 다치나,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나.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관심과 또 정책 연구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아이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정신적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측정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측정 기준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증·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아이들보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정신적 또는 여러 가지 애정도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공급한다면 이 생태계 자체가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매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요. 특히 여기서 낮은 등급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돌봄사들은 별도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장관대행님은 그 정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선 12월 3일에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담함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차관님,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 부분이 불법·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 그거 대답 못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그 부분……

○**김남희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한다는 게 정당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그러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제가 물은 질문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 폭력적인 사태가 괜찮은 거예요? 여가부의 입장은 그거예요? 폭력을 용인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폭력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장이 있으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 대통령의…… 위법·불법이라는, 앞에 그런 단서를 말씀하셔서 그렇고 하여튼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업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 업무를 열심히 쟁기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희 위원** 위헌·위법적인 쿠데타 이후에 극우세력 선동으로 헌정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상황에서 여가부 수장이 그것에 대해서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김남희 위원** 위헌·위법적인 데 대해서는 위헌·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남희 위원** 사법적으로 판단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장도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현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남희 위원** 국무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그 정도의 생각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심합니다.

여가부의 수장으로서 여성·청소년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입장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최근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복지법안소에서 통과된 거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내용 들여다봤고요 저희도 그 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남희 위원** 혹시 이 법 관련돼서 복지부와 협의했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그 법안 논의할 때 의견 드렸었고요. 그런 의견들을 드렸음에도 어쨌거나 복지부에서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김남희 위원** 어떤 의견을 줬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게 지금 대상이 좀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 사업 체계가 현장에서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는 일단 대상이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지침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 영케어러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청소년이지만 만성질환자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돌보고 가사노동하고 때로는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구체적인 지원 규정 없어서 여러 법령에서 서비스가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 가족센터에서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온가족보듬사업이라고 가족돌봄 등 위기가족의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되면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광역 단위의 미래센터를 개소해서 하나의 전달체계로 묶이는데 기존 대상자별로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실제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될지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가부 가족센터에서 하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은 계속 유지되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이 법 통과 당시에 이런 우려를 충분히 전달을 했었고요. 우리 부 전달체계와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중복 여부는 후에 하위법령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하위법령하고 장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미래센터에 지금 센터당 14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 6명의 돌봄코디네이터 1명당 100명의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여가부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계속 사업 지원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사례관리 등 경험 있는 인력들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지 좀 걱정되는데요. 혹시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좀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점검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희 위원** 위기청소년 관련된 업무,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빈틈없이 지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사각지대 생기

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 피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잘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차관님, 방금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에 계엄 이후에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가부에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는 정상적으로 저희 업무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만 위원 최근에 독일 쾰른시에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가 갑자기 금지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독일 시민단체들이 세계 여성의 날 계기로 소녀상을 전시할 계획인데 쾰른시장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전시회에 다른 단체들 설치물을 다 팬찮고 유독 소녀상만 문제를 삼았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를 질문한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소녀상만 제외가 된 거?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단 이쪽 관련된 시민단체 얘기로는 일본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용만 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차관님, 지난번 국감 때 평화의 소녀상이 단순 조형물이냐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차관님께서 평화의 소녀상은 세계 시민들에게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상징물이다라는 데 동의해 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기억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용만 위원 그때 제가 소녀상 훼손 방지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소녀상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등 요구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한 여가부의 조치입니다. 아까 공백이 없고 열심히 하겠다 얘기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좀 말씀드릴까요? 그 추후에, 이후에 저희가 관련 추진 방안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심의위원회를 1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소녀상 관련 추진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그걸 왜 내용을 보고 안 하십니까?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

를 한 건데.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이거 회의 끝나는 대로……

○김용만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할 내용이 더 있어요.

지금 여가부가 소녀상을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대응을 너무 부족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오늘 보셨겠지만 청원 내용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안부 피해자 보호 의무를 가진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인 걸 알면서도 국가 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청원을 한다.

최근에—지난 1월이지요—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수요집회 방해 단체한테 집회 우선권 인정하고 피해 생존자분들한테 대못을 박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가 무슨 대응을 했나요? 대응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상황이냐고. 몇 번씩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유감 표명 정도 하더랍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 명예훼손 전 더불어서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8월 상임위 때도 얘기하고 국감 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국감 때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서는 보고 안 한다는 얘기 듣고서는 참 황당해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때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이거 어디 담당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안부 기록물 관련해서 등재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또 관련 주관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지금 관련 단체하고 의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6월에 준비되어 있는 그 회의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준비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면 하고.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두루뭉술한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좀 보고를 해 달라는데 보고를 안 하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사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덟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편안한 노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금하고 간병비 더 올리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올해 인상됐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결산소위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여가부 예산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때 저는 정말 여가부가 공백 없이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지금 봐 보면 이렇게 간병비하고 지원금 올려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할머니들 수요집회 같은 데서 매춘부라고 얘기 들어요. 매춘부라고 얘기를 듣는데 돈 더 주면 기분 좋습니까? 해결되는 것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용만 위원 차관님, 유네스코 등재 건도 위안부 할머니들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건도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보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까 말씀드린 소녀상 관리 방안은……

○김용만 위원 아니요, 지금 보고하지 마시고 자료들 잘 준비해서 꼼꼼하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선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이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의원실에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보고를 하라 한 건 반드시 여성가족부직무대행 및 간부들이 꼭 챙겨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김한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한규 위원 차관님, 다음 주, 딱 일주일 후인 2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직무대행 맡은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규 위원 예, 차관님이 직무대행 한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김현숙 차관이 사의 표명한 게 2023년 10월 12일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지금 직무가 정지돼서 여가부가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사실은 비정상적이지요. 장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원래 장관 임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장관 임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지난 국감 때 논의됐던 것 몇 개 여쭤볼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작년에 새롭게 출범됐는데 지금 관리위원장님 임기가 끝났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실의 낙하산 인사가 원장으로 추천되는 것 아니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후보자가 적합한 후보자인지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후보자가 추천된 지가 몇 개월이 됐잖아요. 그거 기재부 공운위 거쳐야 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이 임명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장관이 없으니까 차관님이 인사권 행사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실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적합한 분을 저희가 임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적합한 분인지 찾는데, 국감 이후로도 벌써 5개월이잖아요. 인사혁신처

에 계셨는데 통상적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찾는 게 5개월 이상 걸리는 게 정상적입니까? 저는 그 3명의 후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신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대전 초등학교 하늘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늘이가 방과후학교 돌봄을 끝마치고 오다가 안타깝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돌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 사안에서는 돌봄 교사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돌봄을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학교 돌봄도 있고 지역사회 돌봄도 있고 또 아이돌봄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담당하는 아이돌봄 관련해서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채용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스크린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아마 채용되는 부분에서 좀 거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지요, 그건 면담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자료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담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의료 기록을 보고 판단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채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뒤에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더 이상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걸러 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의 항목에 정신건강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을 좀 추가하고 매년 스크린을 해 보고 거기에 또……

○**김한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금은 몇 년에 한 번씩 정신검사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매년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고……

○**김한규 위원** 매년 진단서에 정신검사가 들어갑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안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 10년에 한 번씩만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실무를 확인을 하셔야지요, 개선을 하려면 현재 문제점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정신질환이란지 판단하는 것, 아까 면담으로 하는 것 보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기준을 보시면 좋겠고.

민간의 육아도우미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습니까,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민간에서 육아도우미 부분은 기준이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기준이 없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격증명제는 있지요. 그런데 자격증명제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법 개정하는지하고 무관하게 그러면 여가부가 아무런 스크린도 없이 육아도우미를民間에서 활용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치가 나와야 돼요. 저희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차관님 저한테 전화 한번 하신 적 없지요? 태어나서 저희는 전화한 적이 아직 없는데, 법안소위가 몇 개월째 안 되고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이 안 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한번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문자로 감사 문자는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김한규 위원 문자는 작년에 다른 법안 처리됐다고 감사하다고 한 번 보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전화드리기가 좀 송구해서 그랬습니다.

○김한규 위원 뭐가 송구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위원장 이인선 겁내실 필요 없는 간사님이신데……

○김한규 위원 하여튼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교육부가 담당하는 학교 돌봄인지 복지부가 담당하는 지역사회 돌봄인지 여가부가 담당하는 아이돌봄인지, 돌봄의 총체적 기관을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몰라요. 여가부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이 사건은 조금 사안이 다르지만 여가부가 돌봄에 대해서 부모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체크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소통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범수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이제 마지막인 모양이지요?

○위원장 이인선 예, 마지막입니다.

○서범수 위원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김한규 간사님한테만 소통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도 소통 안 합니다. 몰라요, 위원장님하고 하는지. 제가 여가부 국·실장들하고 마주 앉아서 무슨 자료를 들고 의논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것들은 여당 간사가 보통 먼저 제안을 해야 되지요.

○서범수 위원 이제 왔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인선 정신 차리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차관님, 작년에 우리 여가위에서 민생이라든지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여

러 가지 법들도 통과시키고 그와 관련되는 예산도 증액을 시켰는데 무산됐지요? 지금 그 예산 증액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차관님 입장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예산 올린 것 중에 무산된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까 많이 제기해 주신 디지털성범죄 정부 대응에 따라서 저희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24시간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증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삭제 지원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좀 시급하고.

그다음에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난해에 잘 통과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 소득기준도 상향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예산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잘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고려를 해 주셨는데 제도개선에 따른, 그러니까 수당 주는 것 말고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법수 위원 급한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게 다 민생 사업 관련된 예산들이고 수요자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서법수 위원 급한데 지금 여가부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던데. 안 급한 것 같아요. 안 급하지요?

이 예산이 없으면 예를 들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이라든지 아이돌봄 지원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제,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단 당장.....

○서법수 위원 언제까지 견딜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저희 생각은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일단 다 잘 추진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서법수 위원 그러면 잘 추진할 수 있네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확보가 돼야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없어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요,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의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80억 정도, 81억 증액이 필요하지요? 필요하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때 그렇게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리 논의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서법수 위원 아니, 논의를 한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이걸 하자고 해서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남 일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게 81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아무것도 못 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에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 다라는 대책을 국민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않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서법수 위원 예산을 늘려 주면 하고, 안 늘려 주면 그대로 없는 걸로 하는 거지요, 여 가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서법수 위원 그래서 아까 김한규 간사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말씀하는 게 지금 여가부가 좀 급한 게 없다,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추경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지만 아직도 그게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가부에서는 각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정부 내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국회하고 더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다음에 딥페이크 계속, 아까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자경단, 목사방 이게 지금 계속 끊이지 않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를 했지만 딥페이크 관련해서,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여가부의 역할이 뭐예요? 주무부처가 어디예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 맞습니다.

○서법수 위원 맞지요? 그런데 여가부가 지금 보면 전부 다른 데 빼 주는…… 관련 부처, 경찰은 경찰대로, 방심위는 방심위대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잘 보고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간사 부처로서……

○서법수 위원 그러면 좀 잘 보여 주세요, 여가부에서 활동하는 걸. 좀 잘 보여 주세요, 뭘 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가부에서 차관님이 좀 중심을 잡아서 업무적으로 치고 나가 줬

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실제로 뭘 하는지도 홍보도 강화시켜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적하신 부분, 미흡한 부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APEC 관련……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8월에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8월에. 그게 뭐예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APE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서범수 위원** 그런 것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소개시켜 준 적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그때 예산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 사업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전반적으로…… 여가부차관님께서는 직원들하고 하여튼 예산이든 업무든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사실 정부 간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위원들이 각자 예결위에도 있고 다 위원회가 다른 겸직 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고 반드시 다시 다 모여서 뭐가 부족했는지……

지금 다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분야, 분야마다 꼭 필요한 것들인데 답변하실 때 ‘이거 예산 필요한데 꼭 해 주세요’가 아니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우선 하고’ 이렇게 자꾸 들리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해하시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대정부질문이 있고 상임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혹시나 빈틈이 있나 싶어서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 가지고—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의원님실에는 그냥 가면 됩니다—가서 꼭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좀 쫓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부했듯이,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과 각 기관장님들이 오늘 배석을 하셨는데요 업무 보고는 직접 못 했지만 아마 많은 질의 중에 있었을 겁니다. 각자 그 질의 내용을 받아가셔 가지고 차관님하고 같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심도 있게 검토돼서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김남근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업무보고와 여러 가지로 귀한 조언들, 귀한 질의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나 실행력이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입법과 정책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여러 가지로 포용 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고 또 여성가족위원회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장관대행님 및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법안심사(8인)	김남근 김남희 ◎김한규 백승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5)
	김상옥 서범수 한지아	국민의힘(3)
예산결산심사(8인)	김용만 김한규 이연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4)
	◎서범수 이달희 조은희	국민의힘(3)
청원심사(4인)	정춘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서영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2)
	◎서범수 이달희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7인)

김남근 김남희 김상욱 김용만 김한규 백승아 서범수 서영교 이달희 이연희
이인선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정춘생 조은희 한지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대변인 최문선
정책기획관 김권영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 최성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김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주원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선민	정춘생	조국혁신당	2025. 2. 12.

○의안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11월 27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0)

11월 28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7)

12월 3일 회부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8)

12월 6일 회부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1)

12월 18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8)

2025년 1월 2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3)

1월 8일 회부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1월 14일 회부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이상 2건 1월 21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1)

1월 22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9)

1월 24일 회부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3)

이상 2건 1월 31일 회부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6)

2월 7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8)

2월 1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24.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4)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소년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불법 전자담배 퇴출, 탈루 세액 징수 및 담배 동일규제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청원

(2025. 2. 6. 맹희석으로부터 김준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102)

2025년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6)

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3)

2월 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회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11. 20. 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11월 21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11. 12.	시행령
제21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 11. 21.	시행규칙
제2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 11. 26.	시행규칙
제21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	시행규칙

○보고서 제출

2024회계연도 4분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명세서

(2025. 1. 21. 여성가족부 제출)

202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2025. 1. 23. 정부 제출)

2024년도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주요정책) 결과보고서

(2025. 2. 3. 여성가족부 제출)